



◇통도사에서 신경수·양대웅스님에게 학춤을 전수받은 김덕명옹 사찰에서 스님들이 출 때는 흰 장삼에 홍가사를 수했으나 인간으로 나오면서 복색이 갖과 도포로 변했다.



◇학의 날개짓 등 기본 동작을 응용한 80여가지 춤사위로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양산사찰학춤은 중생교화의 방편인 동시에 부처님의 공덕 찬탄, 국가의 태평성대를 기원했다.



◇천여년이 넘게 통도사에서 전승되어 왔던 사찰학춤은 정화 이후 사찰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김덕명옹과 백성스님(사진)들에 의해 맥이 이어지고 있다.

1975년, 부산대 영문과 교수였던 서국영(당시 문화재 전문위원)박사는 양산에서 왔다는 무용수가 추는, 어디에서 본 적이 없는 '학춤'을 만난다. 그 안연은, 4년 전 동래학춤을 발굴, 무보(舞譜)를 만들고 문화재 지정보고서를 작성했던 서박사의 경력 때문에 이루어 질 수 있었다. 금정산에서 처음 그 학춤사위를 보았을 때 서박사는 그만 매료됐다. 동래학춤에 관한 보고서 작성 때문에 모든 춤사위를 외우다시피 한 서박사로서는 김덕명씨(당시 52세)가 보여준 다양하고 사실적이며 예술적 가치가 높은 새로운 학춤에 놀라고 말았던 것이다.



◇팔손을 바라보는 노령에도 양산사찰학춤을 알리는 일과 후학 양성에 열심인 김덕명옹이 제자에게 춤사위를 전수하는 모습.

정화이후 사찰서 자취감취
김옹, 9월5~7일 서울 공연
"무형문화재 지정해야" 여론
영향받은 동래학춤 이미 지정



◇최근 양산사찰학춤의 탁월한 문화재적 예술성을 인정해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산사찰학춤을 사랑하는 문화인들이 모여 보존회를 결성하고 양산문화원에 사무실을 개원, 헌신적 활동을 하고 있다.

무애행·깨달음 표현...양산 사찰학춤

"현재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돼 있는 동래학춤보다 춤사위가 30여 가지나 더 많거든요. 그래서 춤을 어디서 배웠는지고 물었더니 양산 통도사에서 스님들이 추천 춤이라고 해요."

동래야류, 자신발기 등 민속예술의 무대화 에 주력하며 연출가로 활동해왔던 서박사가 김덕명씨가 보여준 양산사찰학춤의 예술적 가치를 놓칠 리가 없었다. 전공 논문 준비 까지 제쳐두고 곧바로 그 춤에 관한 계보 조사 와 무보 작성,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영혼이 역사속에 묻혀버릴 뻔 했던 양산사찰학춤은 이렇게 해서 세상 빛을 보게 되었다.

1년 뒤인 1976년, 서국영박사는 양산사찰 학춤 조사보고서를 펴냈다. 양산사찰학춤은 신라 선덕여왕 15년(646년) 자장율사에 의해 통도사가 창건된 이래 대재(大齋) 등 사찰의 큰 행사 때 꼭 열렸던 의례였다. 즉 승무와 학춤이 대대로 계승되어 왔다. 보고서는 명무승려(名舞僧侶)로 유명했던 신경수 스님의 말을 전해들은 김말복(보광종 교장, 통도사 주지 역임) 스님의 증언을 기초로 작성됐다. 김말복 스님에 의해 칠종시대까지의, 춤을 추었던 스님들의 계보는 남아있지 않으나, 고종시대인 1880년대부터는 이철호, 김설감, 신경수, 양대웅 스님 등으로 승무와 학춤이 계승되어 내려왔다고 고증이 되었다.

실제로 양산 통도사 경내에서나 사하촌인 신평리에서 스님들에 의해 학춤이 추어졌던 사실이 당시 통도사에서 지냈거나 통도사 인근에 살았던 이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1930년을 전후해 승려로 있었던 김상도 씨나 1938년부터 통도사 강원에서 공부했다는 윤장우씨, 신평리에서 나고 자라 하북면 면장을 지낸 지명구씨 등은 모두, 통도사 스

님들이 학춤을 추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한다. 특히 1920년경 통도사에서 수행했던 용명스님(97)은 "20년경 금강산에서 통도사로 왔는데, 봄에 열렸던 계회(戒會, 수계산법 법회)가 끝난 후 신경수 스님이 대웅전 앞마 당에서 흰 장삼에 홍가사를 수하고 학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처럼 사찰에서 스님들에 의해 추어졌던 학춤은 사찰계와 민간계의 학춤 계보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흘러나왔다.

그러나 중생교화의 한 방편으로 통도사를 중심으로 전승되어오던 학춤은 비구 대처 분장시기인 정화를 거치며 통도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됐다. 그나마 사찰계와 민간계를 통틀어 유일한 생존자인 김덕명옹(현 79세)

장삼을 입은 채로 장삼자락을 휘날리며 너울너울 추었던 학춤은, 천상과 인간계를 넘나 들 수 있는 세인 학의 몸짓으로 깨달음의 세계, 선(禪)의 세계를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교화 방편이었다. 날개짓, 다리늘림, 고개짓 등 24가지 학의 기본동작을 섬세하게 표현한 양산사찰학춤은 기본 동작을 응용한 80여 가지의 다양한 춤사위로 무애행(無礙行)과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공덕 찬탄, 국가와 백성의 태평성대 기원 등을 표현해 내고 있다.

서국영박사는 '양산사찰학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동래학춤은 무형문화재(부산시 제3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오래되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양산사찰학춤의 문화재 지정이 여러 차례 보류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학계, 문화계 등 뜻있는 전문가들의 올바른 판단으로 하루속히 문화재로 지정, 계승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중심 전승...김덕명옹 명맥유지

다양한 춤사위로 부처님 찬탄·중생교화

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전통무에 능한 김옹은 현재 '한당무' 인간문화재로 되어 있다. 김덕명옹은 8살 어린 나이에 범어사로 갔다가 다시 통도사에 입산, 신경수 스님과 양대웅 스님으로부터 학춤을 전수받았다. 김옹은 9월 5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6일과 7일에는 호암아트홀에서 양산사찰학춤을 공연한다.

"내가 학인가, 학이 나인가 경계를 모르겠다. 추다보면 어느새 내가 학이 되어 있더라"는 김옹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사찰학춤의 가장 큰 특징은 학의 동작을 모방한 모방무에서 한 걸음 나아가 마음의 세계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몸과 마음의 합일(合一)로 이루어내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사찰학춤이 구현하고자 하는 세상이다. 스님들이 가사

양산사찰학춤의 문화재적·예술적 가치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최근 신기남 의원 등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양산사찰학춤을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문화재청에 보냈다. 양산시와 시 의회도 조만간 경남도에 건의문을 보내기로 하고 관련자료를 준비중이다. 또 양산사찰학춤을 보존해야 한다는데 공감한 문화 예술인들이 모여 '보존회'를 결성하고 보존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불교문화의 정수이면서도 사찰에서는 자취를 감춘 양산학춤, 부처님도량에서 훨훨 선의 경지를 펴보이며 대중들에게 환희심을 줄 그날은 언제일까.

천미희 기자 mhicheon@buddhapia.com

약했다. 양산사찰학춤 보존과 계승에 평생을 바친 학산 김덕명옹의 아들인 백성, 스님은 어릴적부터 아버지 김옹의 춤을 보며 자연스럽게 학춤과 접했고 현재 스님으로는 유일하게 학춤을 추

"학춤 사찰문화로 정립"

복원에 힘쓰는 백성스님

"학춤은 저의 화두입니다. 학과 학춤 연구는 물론 학춤을 새로운 사찰문화로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사찰학춤의 학문적 연구와 함께 사찰학춤의 사찰계 복원에 힘을 쏟고 있는 백성스님(울산 금성불원 주지)은 '학에 미쳤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연구를 묘



스님중 유일한 기능자

'학춤전승계보' 등 연구

고 있다. 학춤 연구를 위해 동국대 불교무용과에 입학, 4학년에 재학중인 스님은 "사찰에서 스님들에 의해 추어졌던 학춤과 불교의 연관성을 밝혀내어 사찰학춤을 새로운 불교문화로 정착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중생을 교화하고 스스로에게는 수행의 방편이 되었던 것이 사찰학춤"이라고 정의한 스님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찰학춤의 보존을 위한 외길을 걸은 양산사찰학춤 예능보유자인 아버지의 삶에 감사하다"고 고마워했다.

"울산학춤연구" 한국전통문화학의 전승계보에 관한 사적 고찰 '사찰학춤과 궁중학무 비교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했는가 하면 여러차례 사찰에서 학춤을 선보인 스님은 "사찰학춤의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사찰 학춤을 승려들에게 전승, 불교예술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사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은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아파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